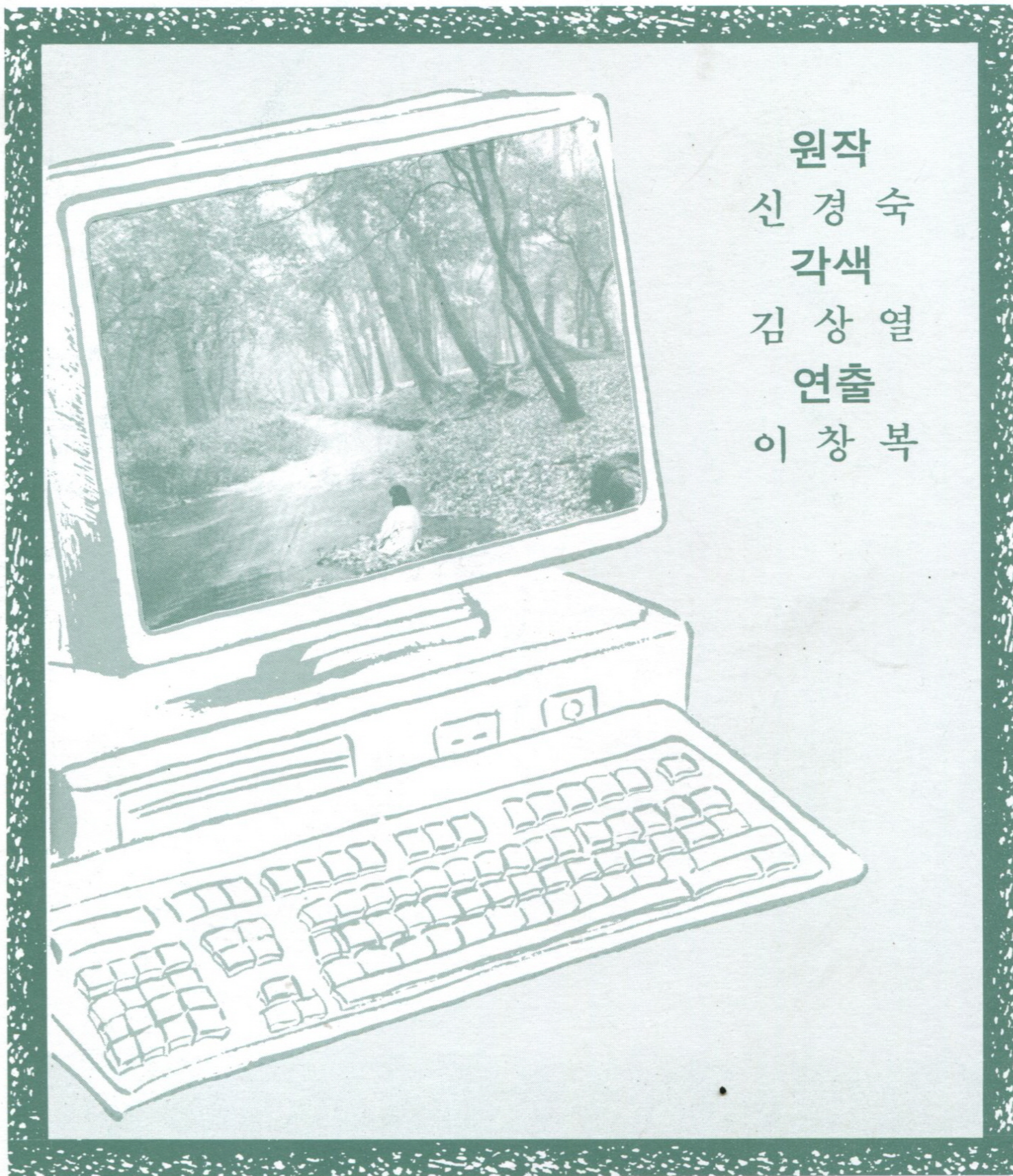


# 63년 9월생

원제 : 멀리, 끝없는 길위에



1994. 9. 29 **목** ▶ 10. 30 **일**

목·금 7시

토·일 4시, 7시

열린소극장 **553-9475**

열린소극장  
세원백화점  
명륜전철역





## 작품이야기

63년 9월생

**94**년도 하반기 정기공연작 <63년 9월생>은 신경숙의 단편소설집 <퐁금이 있던 자리>에 실려있는 <멀리, 끝없는 길위에>라는 소설을 각색하여 극화한 작품이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속에서 20대를 보내고 서른을 맞이하는 나(손진경)의 삶의 모습이 친구 이숙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보여진다. 이 작품에서 나는 나레이터가 되어 과거를 반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서른을 맞는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나의 과거속에는 웅크린 채로 끊임없이 구조요청을 해오는 이숙이 있고, 80년대 사회의 열기 속에 휩싸여 간절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그 가운데 혼자 외롭게 남은 이숙의 죽음이 있다.

사라진 공룡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는 이숙의, 세상 속에 편입되지 못하는 세계는 끝내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으며, 그렇게 이숙을 혼자 남겨두었다는 나의 자책감은 서른이 된 지금에야 사회의 큰 파고 속에 묻혀 미처 꺼안지 못했던 당시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이제나마 글쓰기를 통해, 이숙에게 내주지 못한 마음 한자리를 내줌으로써 그녀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려 한다.

이제, 나의 앞에는 미래를 향하는 먼, 끝없는 길이 놓여져 있다. 나는 지나온 과거를 지나 이 시점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준비한다.

신경숙의 소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매우 잔잔하다. 고조된 갈등이나 극적 긴장감 보다는 잔잔하게 흐르는 서정성이 작품 전체에 흐른다.

두 여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잔잔하고 서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 현재의 모습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스쳐 지나온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경숙

**신** 경숙의 소설을 읽다보면 이야기의 줄거리를 좇던 시선의 긴장은 어느틈엔가 서서히 흩어져서 감정의 흐름을 타고 아련한 영상 한 가운데 닿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꿈결처럼 잔잔히 흐르는 작가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주제나 줄거리에 앞서서 강렬한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신경숙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이미지는 작가의 섬세한 문체가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상의 내면을 혈관속을 흐르듯 구석구석 짚어내는 섬세한 손끝은 깊고 풍부한 서정성을 느끼게 한다. 내면을 그려내는 작가의 솜씨는 그의 독특한 문장부호 사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 등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말없음표(...)와 쉼표( , )는 단순한 문장부호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의미를 지닌 언어 역할을 해낸다.

신경숙은 과거의 펼침을 통해 현실세계의 폭넓은 설명을 시도한다. 그녀의 작품속에 나타나는 현실세계는 항상 그 내면이 되는 과거를 안고 있다. 시간·공간적 경계를 뚜렷이 하고 있지 않는 과거와 현재는 그 영역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며 인물의 의식세계를 펼쳐보인다. 과거를 통해 내면의 보다 깊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중 인물들은 대체로 삶의 쓸쓸함 속에 놓여 앓고 있다. 삶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일상적 삶과 화합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를 안고 주변에서 서성이며 삶의 쓸쓸한 정경을 보여준다.

‘이숙의 죽음’이라는 동일 모티브를 지닌 세 단편 「밤길」, 「직녀들」, 「멀리, 끝 없는 길위에」는 모두 삶에의 적응에 실패한 이숙과 그 주변에 살아남은 나, 또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삶의 의미를 더듬어 간다. 이숙의 죽음을 되돌아 보는 나(친구들)는 그 속에서 자신의 내부에 역시 존재하고 있는 삶의 텅빈 자리를 만나게 되며, 결국 자신의 몫으로 남은 삶의 무게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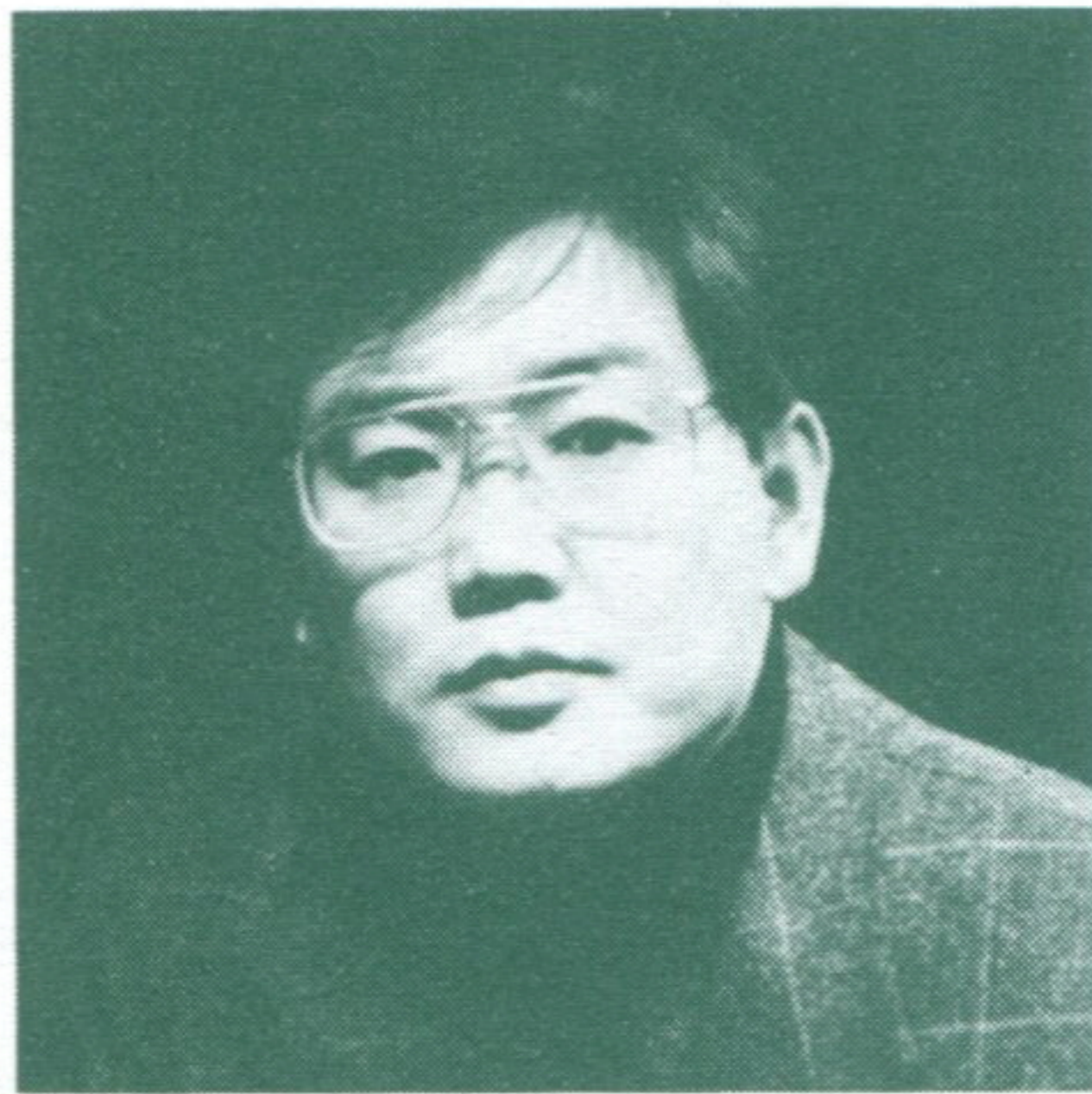
이렇듯 신경숙 작품의 인물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빛깔은 어둡다. 신경숙의 인물들은 그 빛깔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결말을 맺는가 하면 또 살아남은 이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확인할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라보는 그녀의 목소리는 허무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신경숙 작품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삶은 바라보는 시선 밑바닥에 깊숙이 잠재해 있는. 추억의 정서 속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향한 작가의 아름다운 욕망이 감춰져 있기 때문”(박혜경, 「추억, 끝없이 바스라지는 무늬의 삶」)이다.

신경숙이 그 어떠한 대상 속에서도 찾아내고야 마는 아름다움은 결국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그녀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렇게 잔잔히 그려내는 아름다운 슬픔은 그 어떤 격정적인 목소리보다 깊은 울림을 갖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박혜경, 「추억, 끝없이 바스라지는 무늬의 삶」





연출 · 이창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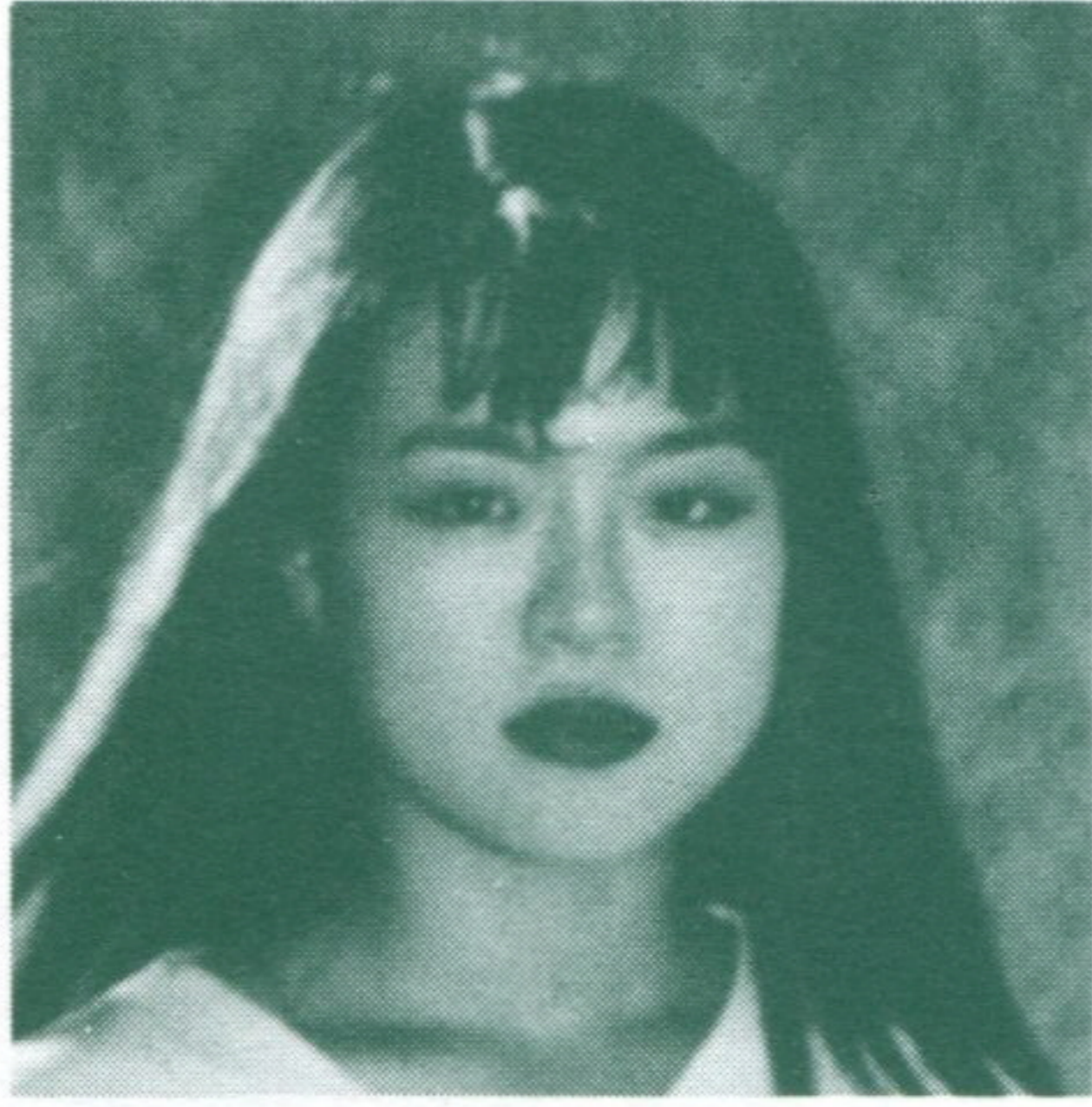
새벽 3시에는 이 작업이 끝나겠지  
그리고  
지하극장을 나서면  
상큼한 가을의 새벽이 있겠지

”

**일** 요일이다. 연습시작 시간 30분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극장 문을 들어서니 환삼과 은경이가 고추장에 비빔밥을 냄비채로 먹고 있다. ‘안녕’하고 무대를 들어서니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 3시반까지 칠하다만 세트가 행하다. 객석에 앉아 무대 색깔과 질감을 다시 점검해 본다.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정원과 내가 산책을 하고 다시 극장으로 들어왔다. 연습시간 5분 전, 단원은 모두 나와 있다. 이른 아침부터 음향 녹음하러 갔던 단원들의 눈에도, 늦게까지 세트 페인팅으로 수면이 부족한 단원들의 눈에도, 무대 앞에서 전단작업을 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눈에도 피로는 겹겹이 쌓여있다. 새로 녹음한 음향 타이밍 중심으로 연습에 들어간다. 음향팀도 연출도 새로 따온 음향이 마음에 다 차지 못한다. 수정할 부분을 다시 체크하면서 배우들의 포즈 상태의 시선처리를 얘기한다. 쉬는 시간, 집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집에 갔다 온다. 다시 연습. 후반부 전화 장면 처리가 까다롭다. 배우의 육성과 녹음된 음향으로 대화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영이의 손끝도 정원의 대사도 긴장 되어있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몇번 되풀이, 무대 위로 큰소리가 날아간다. 순간 정적, 긴장, 다시 되풀이. 두번 돌린 상태로 연습 끝. 어느덧 6시간이 흘렀다. 은경이의 솜씨있는 라면과 찬밥 한덩이를 말아 비운다. 자정이 가깝다. 다시 세트 페인팅. 새벽 3시에는 이 작업이 끝나겠지 생각한다. 그리고나서 지하극장을 나서면 밤새워 작업한 이들에게 상큼한 가을의 새벽이 있겠지.



# 나와 사람들



나  
최정원



이숙  
박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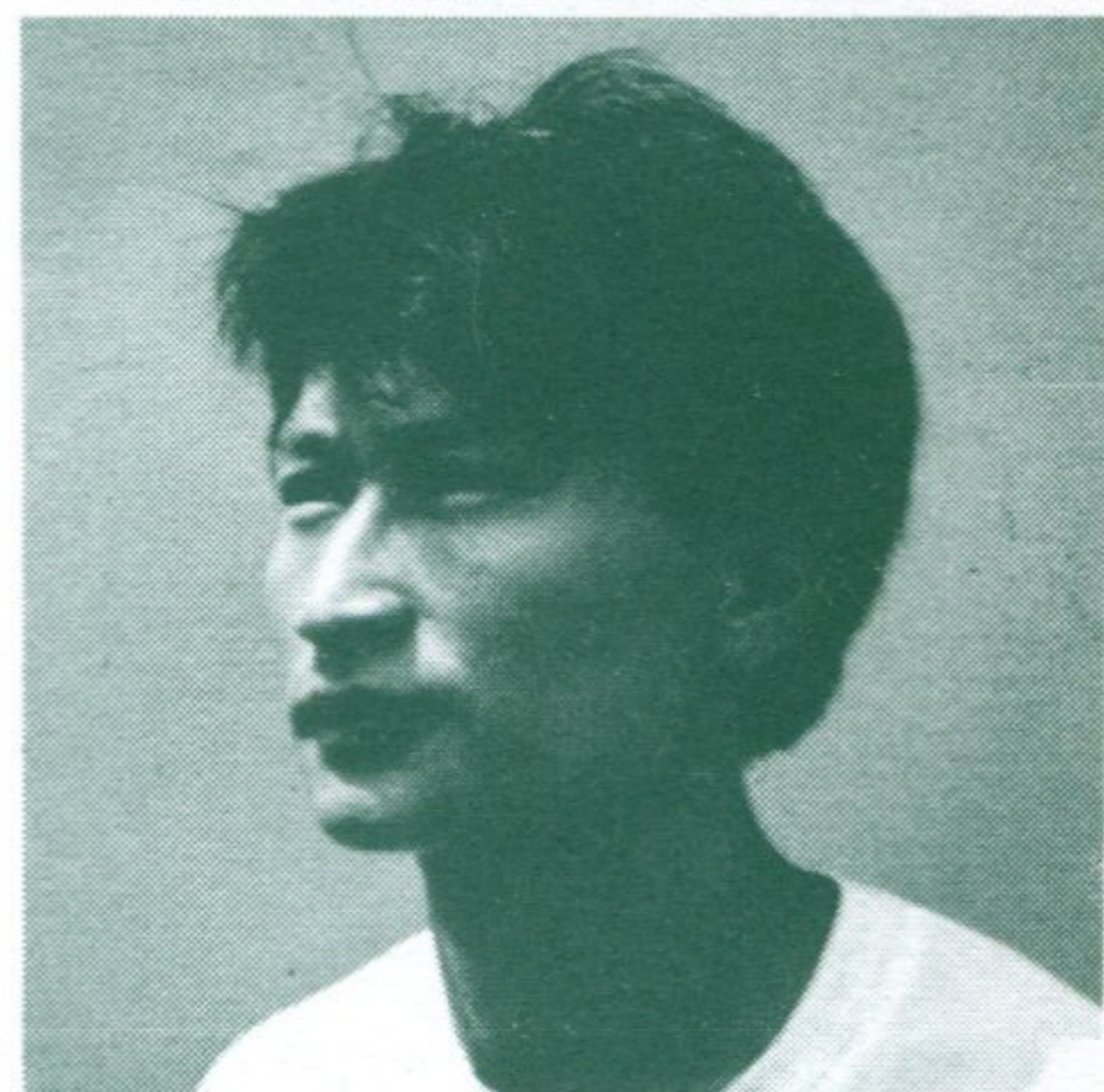
친구,  
언니  
권남희



아버지,  
사람1  
심창신



어머니,  
사람4  
안성혜



남자,  
사람2  
민경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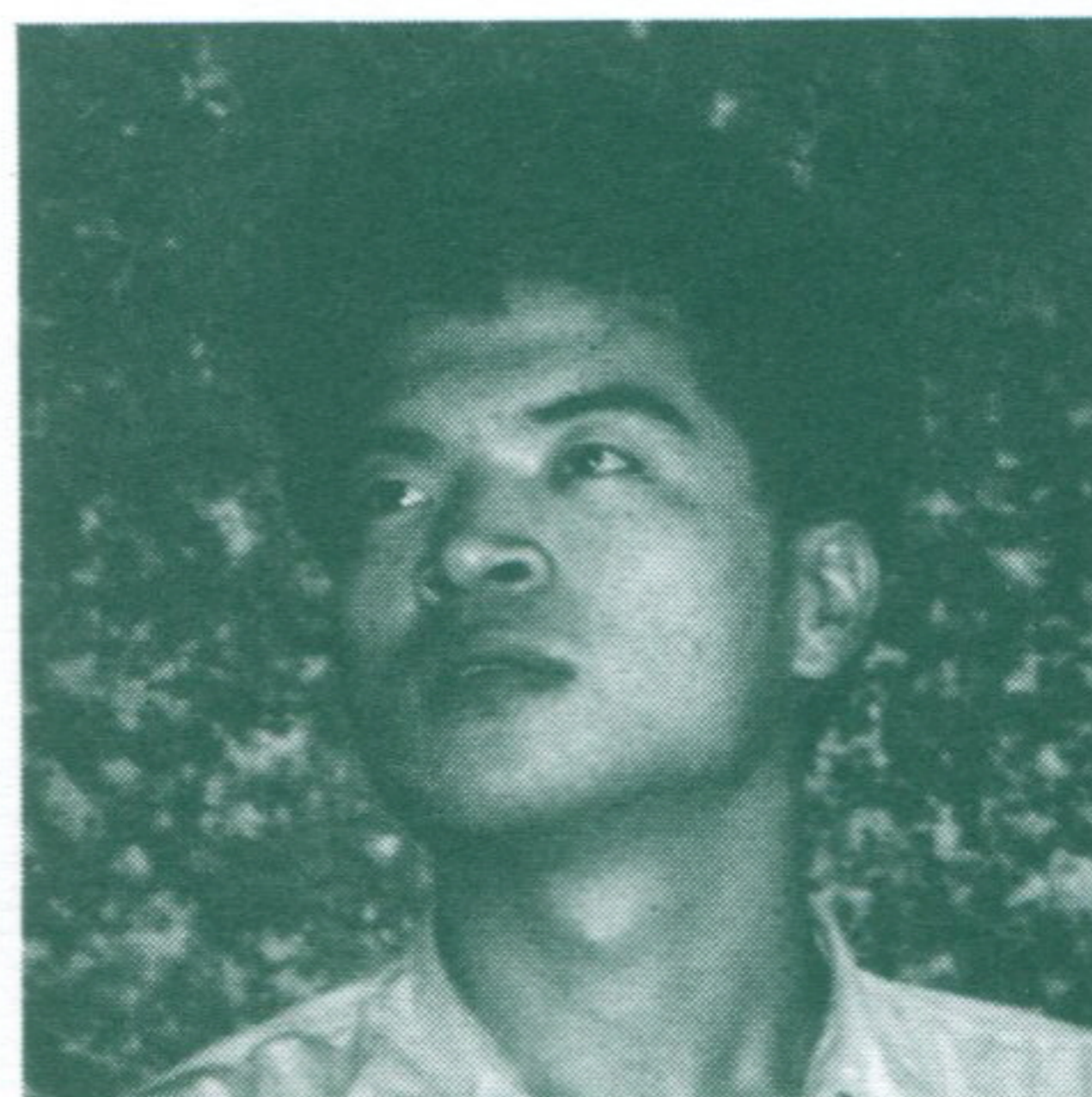
다방레지,  
여자,  
사람3  
최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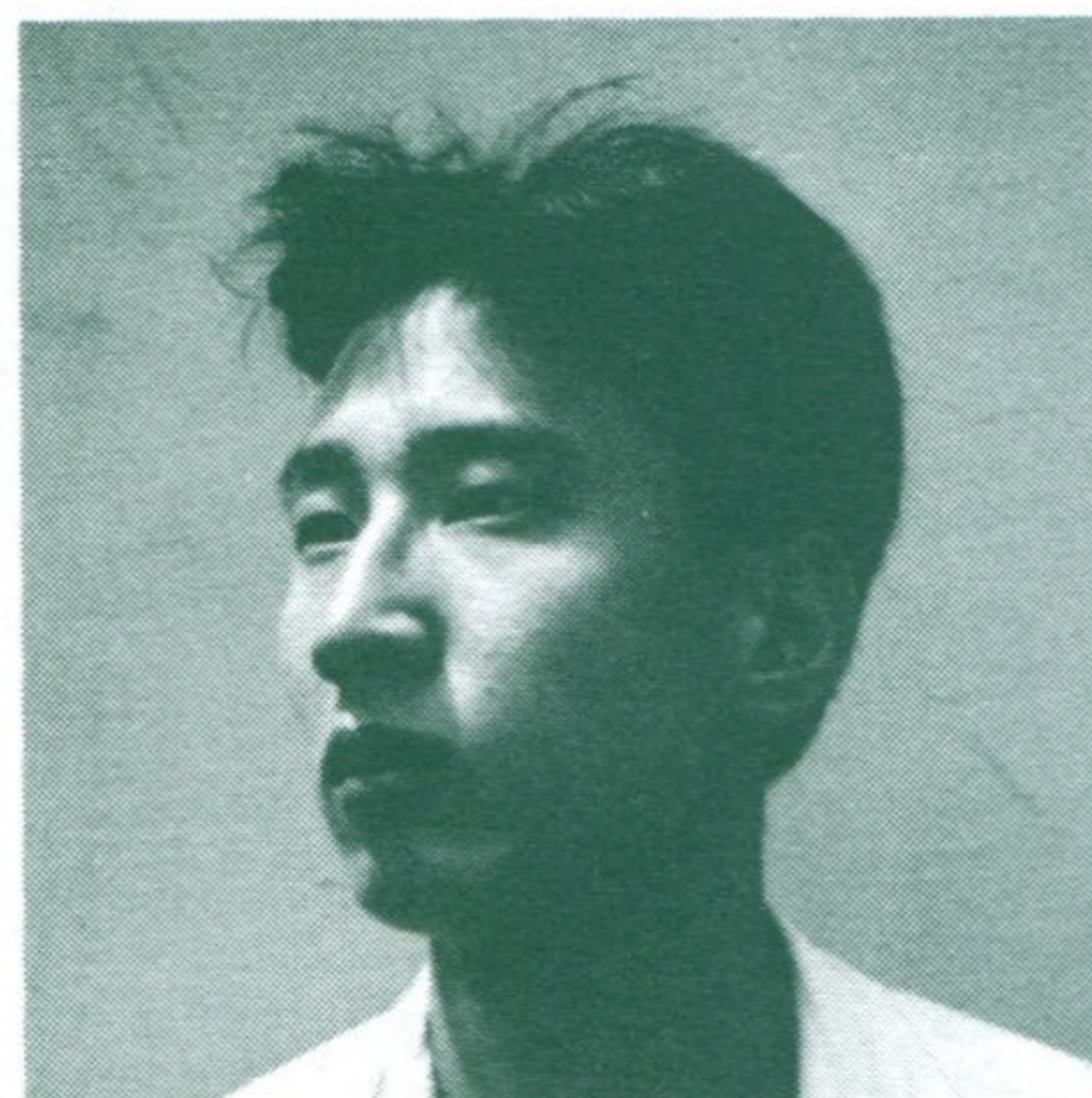
○  
만든  
사람들



무대감독,  
음향  
오 영



무대장치  
강현중



무대장치  
여환삼



조명  
천은경



조명  
남영희



분장  
백현주



소품  
장은선



의상  
김희영